

종무기관 · 각 단체들의 고문 · 자문위원회

내실 위한 새틀짜기 분주

“위촉만 있고 활용은 없다” 지적 꾸준히 대두
 분야별 전문성 강화 · 위촉 구조 단일화 등 모색

불교계 종무기관과 주요 단체들이 구색 갖추기용에 불과했던 고문단이나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기관과 단체는 이미 인력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재활용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며, 나머지 기관과 단체들도 활로 찾기에 나섰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불교계가 대처해야 할 분야와 사안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형태의 자문그룹이 계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움직임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꼭 필요한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해 활용하고 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역시 발족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세미나 한 차례 연 것 외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상황이고,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각 분야 전문가와 명망가 51명으로 구성된 지도위원 역시 ‘관리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교환경연대의 경우 고문, 지도위원, 중앙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150여명의 많은 인사들이 위촉돼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다.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역시 15명의 중앙위원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놓고 있지만 활동은 미미한 상태다.

로 자리 잡도록 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국제사이트 자문단과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지도위원과 전문위원단 역시 실질적인 기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케이스다.

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참여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함께 활동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외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다.

올해 들어 첫 가동되는 위원회들도 형식보다는 내실을 꾀하고 있다. 1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조계종 법률자문단은 경력 10년 이상 된 변호사들을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 위원회에 배치할 방침이며, 10년 미만의 변호사들은 3월부터 조계사에서 불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또 3월초 발족할 조계종 생명윤리위원회도 자문역할 외에 정책 및 현안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외부의 언론인으로 구성된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한명우 · 여수형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기관 · 단체들 재편작업 나서
 이 같은 한계와 모순을 인식한 기관과 단체들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인력재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7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24명의 고문단과 51명의 지도위원 중 활동 가능한 인사와 새로 발굴한 인물을 한데 묶어 지도위원으로 통합하고, 이들을 복지통일 실행 등 분야별 위원회 또는 포럼에 포진시켜 정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2월 23일 총회를 열어 150여 명에 달하는 고문, 지도위원, 중앙위원, 전문위원 가운데 활동 가능한 인사 40명을 선별해 지도위원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7-8명의 자문위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월 23일 공식 출범하는 복지재단 연구소에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을 포진시켜 연구작업을 진행할 방침이고, 파라미터는 중앙위원과 집행위원의 이원적 구조를 단일화해 효율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재가연대와 중앙신도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비판받는 관리부재 현실
 사실 불교계 종무기관과 각 단체 고문단이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촉만 있고 관리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발표하자, 선정 목적과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른바 ‘올려놓고 실질적인 활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종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사회 각계 전문가에게 종단과 불교발전 위한 자문을 구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8월 발족했지만 이후 이렇다할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사라졌고, 지금은

●인력활용 시스템의 ‘차이’
 자문단 위촉은 ‘인재 풀(pool)’을 구축해 사안발생시 각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골격을 갖춘다는 의미와 함께 상시 활동을 통한 실질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인재 풀’ 형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도 이런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시 활동을 통한 실질적 운영 역시 자문위원들의 개인 여건과 활용 시스템 부재로 인해 구두선에 그쳐왔음을 종무기관과 단체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재가연대의 인력활용은 눈여겨볼 만하다. 재가연대는 상임고문, 상임지도위원 운영위원들이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자문역할을 넘어선 단체의 일원으로

총지종 16일 효강 종령 추대 축하연

불교총지종은 2월 16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제 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 축하 만찬 연’을 연다.

효강 대종사는 2004년 5월 총지종

9대 종령으로 추대됐으나 열반한 목적 대종사의 잔여입기를 마치고 이 번에 재추대됐다.

입기는 6년. (02)552-1080
 김주일 기자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에 노무현 대통령 발원문 봉안

노무현 대통령은 2월 7일 함천 해인사에서 거행된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식 법회’에 국대민인발원문을 보냈다.

노대통령은 발원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특권과 차별이 발붙이지 못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한층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을 통해 묵은 과제 극복,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 공존과 협력의 문화 정착, 과학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남북 협력 평화 정착 등을 발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국대민인발원문은 다른 복장 유물과 함께 비로자나불상에 영구 봉안됐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 취임

김윤환씨 부사장에 ... 이사진도 개편



7일 열린 국제신문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사장으로 선임된 김광삼(65·前 현대불교신문 사장·사진 왼쪽) 대표이사 사장이 2월 9일 오후 5시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광삼 사장과 함께 김윤환(57) 영광도서 대표가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김광삼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유상증자 등에 최선을 다해 60년 역사의 국제신문의 영광을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 부사장(사진 오른쪽)도 취임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국

학괴를 졸업,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겸 논설주간, 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상임이사, ‘불교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 한민족 클럽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윤환 부사장은 JC전국부회장을 역임했고 1968년 영광도서를 창업, 한국출판진흥조합 서점경영인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사진도 개편, 이윤환 전무이사, 정영원, 권병모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좌)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이 2월 9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찬불가 노래방기 6대를 군종특별교과 주지 일면 스님(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에게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군법당에 노래방기기 ... “찬불가 힘차게 불러요”

보덕학회 · (주)금영 ‘군포교합시다’ 캠페인 동참

조계종 군종특별교과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재)보덕학회가 사장 류홍우와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이 찬불가 노래방기 6대를 보

경소리는 금영이 찬불가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금영은 찬불가 120여편을 풍경소리의 도움을 받아 노래방 음원으로 일일이 변경 찬불가 노래방기에서 찬불가를 연주하고 부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련기사8면 김두식 기자

동안거 해제범어 2면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 스님
 수신사 수행환경 훼손 3면
 동국대 불교학 박사 7명13면



산문부의 선 17면
 설치미술가 임충섭 화백
 차와 다구도 ‘궁합’ 26면
 소금침취 졸업사 27면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5대 사업 ■「불교대백과사전」편찬사업 ■불교전문교육사업: 불교원전전문학원 「三學窟」 ■학술연구사업: 삼학총서 간행 / 전국연구자결집 「가산학회」 / 수행결사 「동행포럼」 운영 ■문화교회사업: 정기 「수행문화포럼」 진행 ■전문출판사업: 4대사업 성과 및 기획출간사업

“사부대중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로 뜻깊은 열다섯해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연구원가족 恒心으로 精進하며 이 모든 功德을 大眾에게 回向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람 예약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가산불교대사람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7권 출간. 8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원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람」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